Daishin 증권

2026년 01월 16일 금요일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상승 모멘텀 확인, 금리 인하 기대를 대체한 경제 펀더멘털

- 1990년 이후 8번째 사례, 10거래일 연속 상승 기록
- 매파적이었던 금통위, 그러나 유동성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체력
- 순환매 이어지는 코스피, 실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상승 탄력 강화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y

[다음주 시장은?] 실적 모멘텀이 견인하는 퀄리티 랠리

- 10거래일 랠리에도 EPS 상승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유효. 추가상승 여력
- 미중 GDP 및 일본 BOJ 금리 결정 등 주요 이벤트 대기 중
- 실적대비 저평가 내수/소비재 업종 순환매 대응, 주도주 조정 시 비중 확대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Global Strategy

[THE GLOBAL 주간 증시 전략 / 1 월 4 주차] 유럽 · 일본 증시, 각기 다른 요인 속 1 월 효과 지속된다

- 올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지원책 수립 기대 선반영, 대표적 증시(유럽, 일본)
- 각기 다른 1월 효과 지속 요인: 유럽(ECB, 경제전망 상향+낮은 물가 공식화 반기는 분위기), 일본(조기 총선, 다카이치 트레이드 재부각)
- 일본 · 유럽 증시, 1/4분기 상승 흐름 속 얕은 조정은 비중확대 기회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ESG

K-주식시장, 국면의 전환

- 순 공급(Net Supply)의 구조적 반전
- 특정 기업 의존도 탈피와 주주환원의 질적 변화
- EPS 희석 리스크 해소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Commodity

이란산 원유 겨눈 트럼프, 빨라질 중국의 물가 상승

- 이란의 석유/천연가스 교역 정조준한 트럼프, 명분은 시위대 유혈 진압에 대한 경고지만 실제로는 핵개발 재건 시도 저지 목적
- 파생될 관세 부과 효과, 그동안 미국의 제재를 이용해 염가의 이란산 원유 독점하던 중국계 민간 정유사(Teapot 기업)들에게는 악재
- 베네수엘라산에 이어 이란산까지, 전체 원유 수입의 18%를 더 이상 싸게 구매할 수 없다면 향후 중국의 물가 상승 발생 가능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4Q25 Preview] 한화오션: 돈 쓸 줄 아는 회사

- 멀티플 확장 요인은 단연 미국으로부터의 중장기적인 수혜 기대감
- 2025년 매출액은 3.4조원, 영업이익은 3,438억원으로 전망
- 직영과 협력사의 성과급 비율 동일 지급으로 일회성 비용 확대

이지니. jinni.lee@daishin.com

Strategy

상승 모멘텀 확인, 금리 인하 기대를 대체한 경제 펀더멘털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1990년 이후 8번째 사례, 10거래일 연속 상승 기록
- 매파적이었던 금통위, 그러나 유동성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체력
- 순환매 이어지는 코스피, 실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상승 탄력 강화

1990년 이후 8번째 사례, 10거래일 연속 상승 기록

– 코스피는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 이는 1990년 이후 8번째 사례이며 직전 사례는 지난해 9월. 기관의 1조원대 순매수에 더해 외국인도 순매수로 전환.

– 과거 7번의 사례를 보면, 10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 40거래일간 평균 8%의 추가 수익률 기록. 상승 확률 또한 71%로, 상승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즉, 10거래일 연속 상승은 일반적이지 않은 강한 모멘텀을 의미. 급등에 따른 상승 부담과 단기 매물소화는 불가피하지만 실적 펀더멘털을 근거로 하는 견고한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

매파적이었던 금통위, 그러나 유동성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체력

– 한국은행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 특히 통방문을 통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기존의 문구를 삭제. 사실상 금리인하 사이클의 종결을 시사

– 금통위 직후 경제상황평가 보고서를 통해 소비회복과 건설투자 부진 완화 등 내수를 중심으로 향후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을 시사한 이전의 스탠스에서 자신감을 회복

– 경기 회복 기대감은 코스피 상승으로 연결, 장중 달러–원 환율의 반등은 통화정책 기대가 뒤집히면서 외국인의 국고채 매도가 급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매파적으로 변한 한국은행 스탠스에 따라 국채시장의 수급 요인이 해소 이후 환율 상단은 제한 전망. 전일 미국 재무장관도 원화 약세가 한국의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언

순환매 이어지는 코스피, 실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상승 탄력 강화

– 실적 기대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순환매 지속. 단기 원화 약세 흐름으로 조선, 방산, 자동차, 금속 등 수주산업의 상대적 강세

조선/방산: 한화오션(+4.9%), HJ중공업(+8.5%), 한화시스템(+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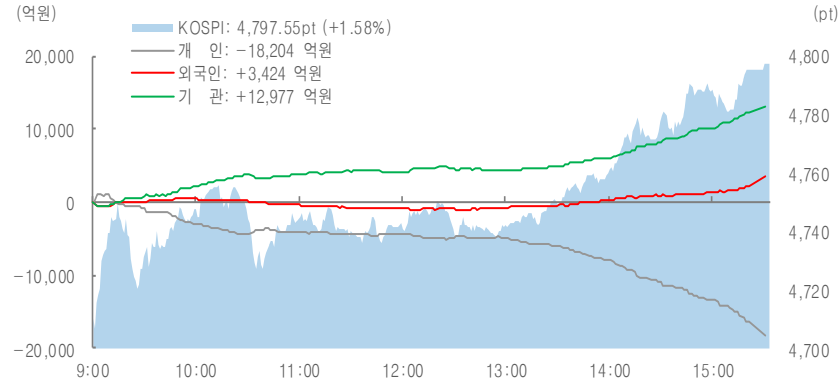
자동차: 기아(+6.6%), 현대차(+2.6%), 한온시스템(+4.2%), HL만도(+0.6%)

로봇/스마트팩토리: 현대무벡스(+13.9%), 레인보우로보틱스(+13.1%)

비금속/자원: 포스코인터내셔널(+4.5%), 포스코엠텍(+21.3%), 고려아연(+11.5%)

정유/화학: SK이노베이션(+3.6%), 대한유화(+5.1%), S–Oil(+5.3%)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Strategy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다음주 시장은?

실적 모멘텀이 견인하는 퀄리티 랠리

- 10거래일 랠리에도 EPS 상승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유효. 추가상승 여력
- 미중 GDP 및 일본 BOJ 금리 결정 등 주요 이벤트 대기 중
- 실적대비 저평가 내수/소비재 업종 순환매 대응, 주도주 조정 시 비중 확대

10거래일 랠리에도 선행 EPS 상승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지속. 실적 모멘텀 기반의 추가상승 여력 여전해

코스피는 10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적인 랠리를 기록. 프리-어닝시즌을 소화하면서 선행 EPS는 465pt까지 상승. 주가상승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으로 코스피 선행 P/E는 10.3배 수준. 당분간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다만 가격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슈에 따른 증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음

주요국 GDP 성장률과 일본 BOJ 금리 결정 등 주요 이벤트 대기 중

다음주는 주요국 GDP 발표 주목. 19일 중국 4분기 GDP 발표. 분기 4.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이는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인 5%에 미달하는 수치이지만 연간 5% 달성 여부와 향후 내수 기반의 성장 전환 가능성이 중요

같은 날 발표되는 중국의 12월 소매판매는 YoY +1.1% 성장이 예상되어 전기(1.3%) 대비 둔화, 산업생산은 YoY +5.0% 성장이 예상되어 전기(4.8%)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 여전히 중국 경제는 여전히 소비 대비 생산 성장에 의존하는 한계를 드러내며 2026년 더 강한 내수부양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

22일 한국 GDP 성장률 또한 견조할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은 내수회복 자신감을 회복하며 금리인하 종료 시사. 소비재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때

22일은 미국 3분기 GDP 및 11월 PCE 물가 발표예정. 3분기 GDP는 예비치 발표이후 수정치이며 PCE물가는 셧다운 이후 발표가 지연되며 정책 시차가 존재, 단기 통화정책 방향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낮음, 12월 고용/물가지표 발표 이후 경제 흐름의 재확인 성격이며 1월 금리 동결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 그러나 두 수치 모두 예비치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날 경우 이벤트 리스크로 인식할 필요는 있음

23일은 일본의 BOJ 금리결정회의에 주목, 0.75%의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 BOJ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되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 높음. 다만, 예상치 못한 매파적 코멘트가 나온다면 엔캐리 되돌림과 글로벌 유동성 우려 자극 가능. 다만 최근 엔캐리 청산 리스크는 시장에 몇 차례 각인되며 선반영되었고 BOJ 또한 리스크 관리 중. 충격 요인은 제한적

내수/소비재 업종 순환매 대응 유효, 주도주 조정 시 비중 확대

앞서 언급했듯 최근 코스피 실적 전망이 빠르게 상승,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 CES 등 산업 이벤트 소화 이후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쏠림이 진정되고 확산되는 양상.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을 중심으로 순환매 전개. 코스피 상승을 더욱 견고히 하는 중. 실적시즌 기대와 함께 당분간 순환매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IT하드웨어, 비철/목재, 화장품, 호텔/레저, 소매/유통, 에너지 업종은 최근 실적대비 저평가된 업종이자 기술주 랠리에서 소외된 내수 업종. 코스피 이익 기여도가 높은 반도체, 방산, 조선, 지주 등 주도주는 중장기 실적 방향성은 견고하나 추격매수 보다는 순환매 과정에서 조정 시 비중확대 권고

Global Strategy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유럽 · 일본 증시, 각기 다른 요인 속 1월 효과 지속된다

- 올해 경제 성장 유도 위한 재정지원책 수립 기대 반영, 대표적 증시(유럽, 일본)
- 유럽(경제전망 상향+낮은 물가 공식화 반기는 분위기), 일본(다카이치 트레이드 재부각)
- 일본 · 유럽 증시, 1/4분기 상승 흐름 속 얕은 조정은 비중확대 기회

올해도 전 세계 각국은 미국발 위험 회피를 위한 경제, 안보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이다. 이는 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지원책 수립으로 연결되며 그 기대가 증시에 선반영될 것이다. 대표적인 증시가 유럽과 일본으로 현재는 각기 다른 요인을 반영한 1월 효과가 지속되며 역사적 사상 최고치 행렬에 동참 중이다.

선진 증시의 맏형인 미국 증시가 2가지 이유(1월 FOMC 기점으로 더 적극적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 전환, 지난해 4/4분기 어닝 시즌 모멘텀 부각)를 바탕으로 1/4분기 상승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돼, 유럽과 일본 증시 역시 미국발 훈풍을 등에 업고 새로운 지수대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유럽은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ECB 물가 안정 목표 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ECB는 지난해 12월 26~27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이전(9월) 대비 상향 조정했다. 25.7월, 9월, 10월, 12월 네 차례 연속 금리 동결에 나선 ECB 행보보다는 경제전망 상향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공식화하고 있는 ECB 입장을 금리 인하와 동일시하며 반기는 분위기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EU가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간 900억 유로 규모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은 지난해 미국 수입가격 인상 지연과 선출하의 기저효과 감안 시 올해 수출 여건 악화가 불가피하고, 유로화 가치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의 성장 기여는 줄어들 것이다. 수출 경기 악화로 내수 부양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각국은 확장 재정을 통한 성장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향후 유럽 증시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일본은 14일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간사장과 일본유신회 대표를 만나 중의원 해산을 전달해 2월 8일 선거가 예상된다. 70%대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중의원 총 465석 중 233석(자민당+일본유신회)을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를 늘리고자 하는 계산이다. 이를 통해 안정된 정권 기반을 확보해 적극적 재정 정책과 강력한 안보정책을 추진코자 할 것으로 보여, '다카이치 트레이드' 재부각이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의 17개 전략 분야에 포함된 AI · 반도체(어드반테스트, 도쿄 일렉트론 등), 방위(미쓰비시중공업 등)그리고 다카이치 트레이드에 따른 엔화 약세(자동차 등 수출주), 금리 상승(은행주) 관련 산업과 종목이 주도주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 일본은 지난해 기저효과, 글로벌 수요 약화로 인한 수출 성장률 둔화, 중국과의 갈등이 맞물려 점차 확대될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 재정확장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향후 일본 증시가 상승하는 배경이 될 것이다. 유럽, 일본 증시 동반 1/4분기 상승 흐름 속, 얕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비중확대로 대응해야 한다.

ESG

Sustainable Investing Analyst 이경연
kyungeon.lee@daishin.com

K-주식시장, 국면의 전환

- 순 공급(Net Supply)의 구조적 반전
- 특정 기업 의존도 탈피와 주주환원의 질적 변화
- EPS 희석 리스크 해소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K-주식시장 공급 구조의 턴어라운드

2024 년 순공급액(유상증자+CB 발행-자사주 소각)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데 이어, 2025 년에는 공급 축소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시장으로의 구조적 변화가 확인된 것으로, 한국 증시가 '희석의 시대'를 끝내고 '환원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시그널이라 판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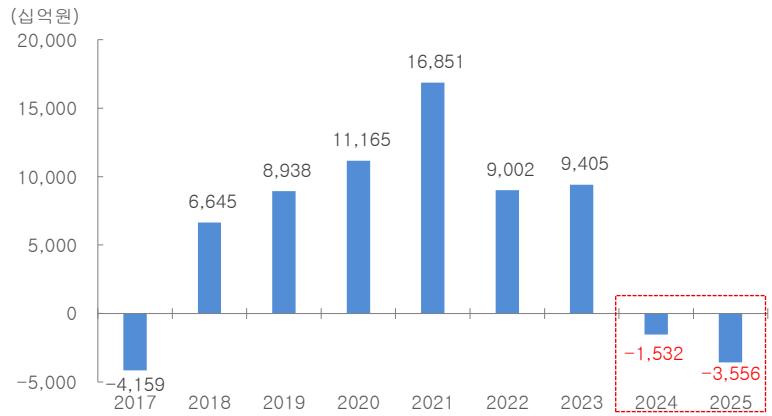
특정 기업 의존도 탈피와 주주환원의 질적 변화

과거 2017 년의 공급 축소가 특정 기업의 절대적 기여에 근거했다면, 최근의 흐름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필두로 다수의 상장사가 동참한 질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에 2025 년 자사주 소각 규모는 전년 대비 133% 급증한 23.3 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EPS 희석 리스크 해소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공급 축소는 곧 주당가치 상승을 의미합니다. 공급의 마이너스(-) 전환은 과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이었던 잦은 유상증자와 불투명한 분할 상장, 그리고 자사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 악용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리스크가 제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2026 년 한국 증시는 단순한 저평가 영역을 넘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합니다.

연도별 유가증권시장의 공급량 (유상증자 + CB 발행 - 자사주 소각)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modity

이란산 원유 겨눈 트럼프, 빨라질 중국의 물가 상승

Commodity Analyst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 이란의 석유/천연가스 교역 정조준한 트럼프, 핵개발 재건 시도 저지 목적
- 파생될 제재 효과, 염가의 이란산 원유 취급하는 중국 정유사들에는 악재
-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산까지, 시장 예상보다 빨라질 중국의 물가 상승

이란의 석유/천연가스 교역 정조준한 트럼프, 핵개발 재건 시도 저지 목적

지난 12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으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25%의 추가 관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조치는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 밝혔다. 표면적으로 보면 시위대를 유혈 진압 중인 이란 정부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핵무기 개발의 배후인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조치이다. 바로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천연가스(56%)이다.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개발 재건 시도를 경고하자 이란 측은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응수했다. 즉,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GDP의 19%를 차지하는 석유/천연가스를 정밀 타격해 혹시 모를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취지이다.

파생될 효과, 염가의 이란산 원유 취급하는 중국 Teapot 기업들에게는 악재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가 중국계 Teapot 기업(산둥 지역 민간 정유사)들의 피해로까지 파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이란의 원유 수출 중 약 90%는 중국으로 흘러간다. Teapot 기업들은 이란산 원유가 미국의 제재 대상인 점을 이용해 시가(Dubai유 기준)보다 10~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오고 있다. 지난해 6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까지 암묵적으로 용인하면서 이란산에 대한 의존도는 한층 더 제고될 수 있었다. 그런 염가의 이란산 원유가 다시 취급하기 어려운 상태로 돌아간다면 Teapot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시장 예상보다 빨라질 중국의 물가 상승

이는 단순히 석유 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종국에는 중국의 디플레이션 상황이 역전될 중대 사안이다. 그동안 중국의 저가 생산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원유 수입의 38%가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부터 염가에 수입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의 6%를 차지하던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미국에 의해 시가 판매로 강제 전환됐으며 12%인 이란산 원유 또한 위기에 처해 있다. 러시아산 원유가 남아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대러 제재 해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가 견인 자산인 원유를 더 이상 염가에 살 수 없다면 PPI 반등은 당연한 수순이 된다.

물론 중국의 1)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2)소비 심리 약화, 3)지방정부/민간 기업들의 부채 부담 등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플레이션의 종식을 말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다. 이를 고려하면 중국의 물가 상승 역시 더딜 수밖에 없다. 다만, 최소한 디플레이션의 원인 중 한 가지가 후퇴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한 점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 대이란 제재가 가져올 나비 효과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Earnings Preview

한화오션 (042660)

돈 쓸 줄 아는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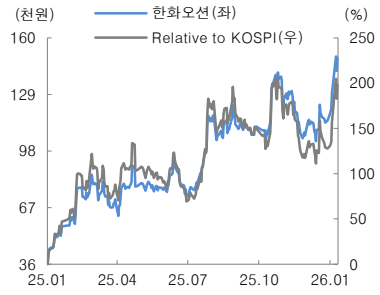
이지니

ji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80,000 상향
현재주가 (26.01.15)	148,900
	조선업종

KOSPI	4797.55
시가총액	45,62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37%
자본금(보통주)	1,53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49,900원 / 50,7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557억원
외국인지분율	11.23%
주요주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1 인 42.01% 한국산업은행 15.2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1.4	41.7	90.9	192.0
상대수익률	12.1	8.0	27.9	51.9



- 멀티플 확장 요인은 단연 미국으로부터의 중장기적인 수혜 기대감
- 2025년 매출액은 3.4조원, 영업이익은 3,438억원으로 전망
- 직영과 협력사의 성과급 비율 동일 지급으로 일회성 비용 확대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80,000원으로 12.5% 상향

목표주가는 2027년 EPS 7,555원에 Target PE 23.4x 적용. 멀티플은 조선업 PE 18배에 방산 사업 부문 30% 할증, 멀티플 확장 요인은 미국 방위비 증대로 말미암아 중장기적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함

4분기 영업이익 3,438억원으로 추정, 컨센서스 대비 11.9% 하회

2025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3조 4,051억원(+4.7% yoy), 영업이익 3,438억원(+103.4% yoy), 영업이익률은 10.1%로 전망.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11.9% 하회할 것으로 전망. 상선 부문의 이익은 12.4%로 고부가가치선인 LNGC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해 안정적인 두 자리수의 수익성 유지 가능하나, 해양 사업부의 고정비 증가로 이익이 일부 훼손될 것으로 예상.

일회성 비용으로는 성과급의 증가가 있음. 동사는 직영과 협력사의 성과급 비율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해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함정 사업으로 확장 가능한 밸류는 무궁무진

미국의 방위비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동사는 미국 내에 실질적인 거점이 있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음. 미국 외에도 태국 호위함 후속함, 에스토니아 OPV, 중동 잠수함 4척 등 여러 수주 파이프라인을 보유. 4분기 일회성비용 인식으로 단기 주가 조정 발생 시, 매수 기회로 판단

(단위: 십억원, %)

구분	4Q24	3Q25	4Q25(F)					1Q26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253	3,023	3,732	3,405	4.7	12.6	3,435	3,505	11.5	2.9
영업이익	169	290	418	344	103.4	18.6	390	385	49.0	12.1
순이익	579	344	270	213	-63.2	-38.0	283	329	52.4	54.1

자료: 한화오션,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매출액	7,408	10,776	12,866	14,288	16,742
영업이익	-196	238	1,264	1,699	2,774
세전순이익	-116	181	1,213	1,886	3,046
총당기순이익	160	528	922	1,434	2,315
지배지분순이익	160	528	922	1,434	2,315
EPS	757	1,724	3,008	4,679	7,555
PER	33.1	21.7	37.9	24.4	15.1
BPS	20,400	15,858	19,114	24,073	31,943
PBR	1.2	2.4	7.8	6.2	4.7
ROE	6.3	11.5	17.2	21.7	27.0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한화오션,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